



미국 나스닥, 장중 급락 이후 반등에 성공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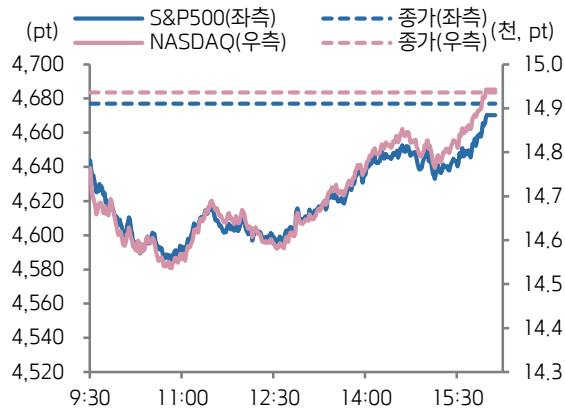
10 일(월) 미국 증시는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오전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재차 출회 되었지만, 저가매수세 유입, 장중 금리 상승세 진정 등으로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 오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81%까지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는 2.7%까지 하락. 하지만 금리 장중 금리 수준이 1.77%까지 진정, 테슬라(+3.0%), 애플(+0.01%), 마이크로소프트(+0.1%) 등 성장주들이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 대부분 축소. S&P500은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다우 -0.45%, S&P500 -0.14%, 나스닥 +0.05%, 러셀 2000 -0.4%).

제네바에서 8시간 동안 진행된 미국-러시아의 차관급 우크라이나 관련 회담은 양측의 요구사항들을 내놓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둬. 금주 NATO와 유럽과 회담을 앞두고 유럽 안보에 대한 대화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함.

업종별로 산업재(-1.2%), 소재(-1%), 필수소비재(-0.7%) 등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헬스케어(+1%), IT(+0.1%)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전 2%대 약세를 보였지만 상승 전환하며 마감. 에너지(-0.3%)는 유가의 1%대 약세 흐름 속에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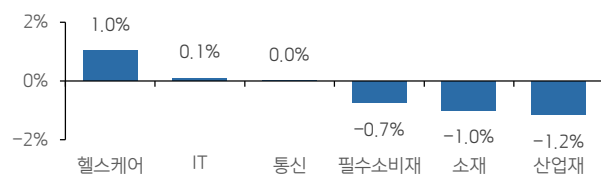
종목별로 화이자(+0.9%)는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이 3월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상승. 모더나(+9.3%)는 2022년 견조한 실적 가이드를 제시함에 따라 주가 급등. 테이크투 인터랙티브(-13.1%)는 장가(Zynga, +40.7%)를 127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나치게 높다는 가격이라는 의견이 부각되면서 급락. 룰루레몬(-1.9%)은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4Q21 실적이 가이드라인 레인지 하단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발표에 주가 하락. 델(+3.3%)은 번스타인이 PC 이연수요와 상업 및 소비자 사업의 믹스 개선을 강조하며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조정한 점에 긍정적으로 작용.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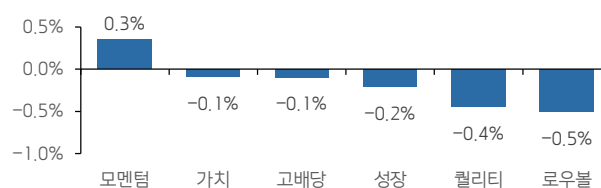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670.29	-0.14%	USD/KRW	1,199.11	-0.2%
NASDAQ	14,942.83	+0.05%	달러 지수	95.97	+0.26%
다우	36,068.87	-0.45%	EUR/USD	1.13	-0.28%
VIX	19.41	+3.46%	USD/CNH	6.38	-0.03%
러셀 2000	2,171.15	-0.4%	USD/JPY	115.24	-0.28%
필라. 반도체	3,805.39	+0.2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018.58	-1.54%	국고채 3년	2.046	+2.1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477	+2bp
Eurostoxx50	4,239.52	-1.54%	미국 국채 2년	0.896	+3.4bp
MSCI 전세계 지수	743.18	-0.11%	미국 국채 10년	1.755	-0.7bp
MSCI DM 지수	3,177.54	-0.2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26.10	+0.74%	WTI	78.41	-0.62%
MSCI 한국 ETF	76.32	-1.56%	금	1800.9	+0.1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변동이 없었음. 유렉스 야간선물은 0.4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8.7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험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장중 미국 나스닥 반등 성공이 국내 증시에 안도감으로 작용할 가능성 2. 미국 10년물 금리 급등세 진정으로 인해 최근 주가 급락이 심했던 국내 성장주 반등 여부 3. 최근 주가 상승세를 보인 가치주 vs 주가 하락세를 보인 성장주 간 단기 로테이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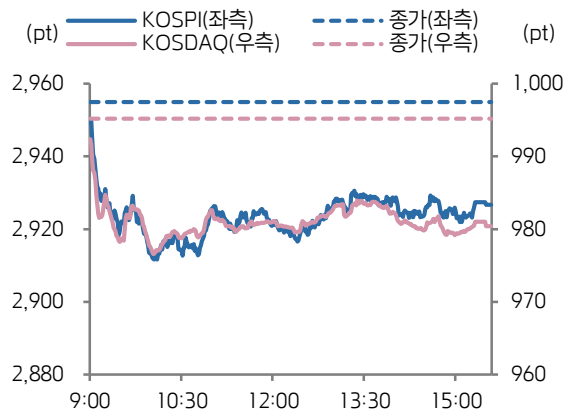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0년물 금리 급등세 진정 및 나스닥 급반등으로 성장주들의 약세장 진입 불안을 덜어내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지난 12월 FOMC 점도표 상으로 연준은 올해 25bp 씩 3회 금리인상을 시사했으나, 최근 외사 대형 IB를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연내 4회 금리인상까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 당사 역시 물가와 고용측면에서 연준의 금리인상 자체는 당연한 수순이며, 3월 FOMC에서 첫 금리인상 후 하반기 양적 긴축을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3월 FOMC 이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지표 의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함.

연말 소비시즌이 지나고 미국 물류대란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년후 기대인플레이션이 6.0%로 전월과 동일했다는 주목할 필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연준발 긴축발작을 겪고 있으며 이를 소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 다만, 연준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 점증 등을 감안 시 연준발 시장 불안의 지속성은 길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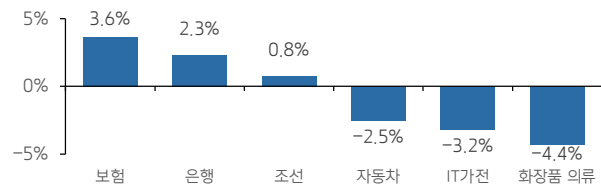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 급락에 따른 낙폭 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미국 나스닥 플러스 전환에 따른 안도감에 힘입어 성장주, 수출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할 전망. 그러나 파월의장 상원 인준,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예상 7.1%) 등 연준 관련 이벤트가 잇따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장중 국내 증시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1월말 상장인 LG 에너지솔루션 편입 준비를 위한 기관 등 주요 수급주체들의 여타 주식 매수여력 부재, 사전 포지션 변경 물량 출회 등 상거 대규모 IPO를 앞둔 수급 부담은 월중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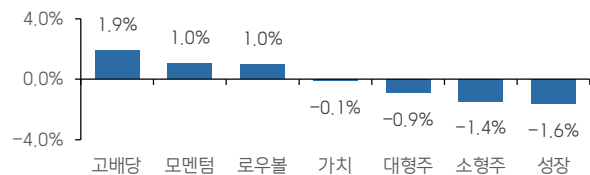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